

교회소식

- 2019 단기선교
 - 일정/장소: 2월18일(월) - 22일(금) / 혼두라스 라스플로레스
 - 오늘 친교 후, 소예배실에서 선교팀 모임을 갖습니다.
 - 단기선교 전단지(일정, 선교팀 명단, 기도제목, 도와주실 일들)가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한부씩 가져가서서 기도로 참여해주세요.
 - 오늘 친교 후, 친교실에서 약을 포장합니다.
 - 2월 16일(토)에 짐을 싸입니다. 단기선교팀은 오전 9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세요.
 - 선교와 단기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손만두(야채/고기)를 판매합니다. 2월 6일(수) 오전 10시부터 교회에서 만들고, 다음 주일(2월 10일)에 판매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회 주소록을 만들기 위해 가족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 예배 후, 미디어팀이 촬영합니다.
- 공동의회 공고
 - 예결산 공동의회: 2월17일(주) 예배후 본당. 다음 주일 (2월 10일) 예산안을 배부합니다.
 - 장로 투표 공동의회: 3월10일(주) 예배후 본당.
후보자: 김동수, 서영수
선출이 확정되면 장로임직식을 3월31일(주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2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대표기도: 김현정 권사 (시138)
이번 주 친교: 김은영 집사, 강승연 집사
다음 주 친교: 이영순 권사, 임수연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될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러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3월개강)	여성반	수 10am / 소회의실
	가족반	목 8pm / 대회의실
	남성반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교역자

담임목사: 이민영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교육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060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 Leader

Word of God ----- **John 13:12-15** ----- Pastor Kim

Sermon ----- **“Follow the Leader”**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Leader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27장(통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 다함께

Hymn Majestic Sweetness Sits Enthroned

대표기도 ----- 시편 71:1-6 ----- 김병규 집사

Prayer Psalm 71:1-6

찬양 ----- “능하신 주의 손”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이사야 40:27-31** ----- 인도자

Word of God Isaiah 40:1-11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설교 -----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406장(통464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다함께

Hymn I Have Found Sweet Rest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이사야 40:1-11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헨델의 메시야 서곡 다음에 나오는 첫 가사입니다. 나팔소리 같은 테너의 낭만한 목소리와 어울리는 곡입니다. 메시지와 목소리가 어울려야 합니다. 메시지를 맡겨주신 주인과 전달하는 사람은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보낸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보낸 이의 뜻이 이뤄지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은 메신저에 관한 말씀입니다.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메신저를 보내십니다. 언약의 표현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 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려는 신실하신 사랑(“헤세드”)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로 위로 받으라고, 구원하시려고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진짜로 위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팽과리입니다.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뤄질 때까지 필요한 일을 합니다. 광야에 길을 예비합니다. 돌짜발을 함께 치워줍니다. 가시나무를 치우기 위해 위로하고 세워주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 구원하러 오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 굳은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의 선한 마음이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풀과 같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의로운 것처럼 정죄하거나, 하나님보다 너그러운 것처럼 위로할 게 아닙니다. 오직 들은 말씀,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전하고 듣기에 어떠하든지.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전하기 편하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주신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은 “주께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강한 자로, 심판자로 오시는 소식이 어찌 좋기만 한 소식이겠습니까? 그 앞에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이겠지만 하나님이 싫은 사람에게는 공포의 소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그 거룩을 두려워할 때, 십자가의 긍휼을 목말라 갈급하게 됩니다. 없어서는 안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 긍휼을 입고나면, 우리는 두려워 나가지 못할 때에도,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갈 때에도 여전히 쫓아오신 신실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긍휼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베푸는 게 아니고, 보내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주님을 보라” 전할 뿐입니다. 어찌해서라도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긍휼을 간구하고 입을 때, 여전히 사랑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벌 받고 죽는다”는 무서운 메시지를 주실 때, 자기가 죽을 준비를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벌을 다 받고 용서가 임한다”는 메시지는 거룩을 포기한 관용이 아니라 십자가 심판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용서하시는 뗏가를 끝까지 치르실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긍휼해지기 위해 주님의 거룩을 훼손하지도,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자기 생명을 뗏가로 치르신 주님의 용서하심의 확실한 능력을 폄훼하지도 맙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뜻대로 행하십니다.

Memo